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브리핑 nabo Briefing
2018. 8. 29. 제36호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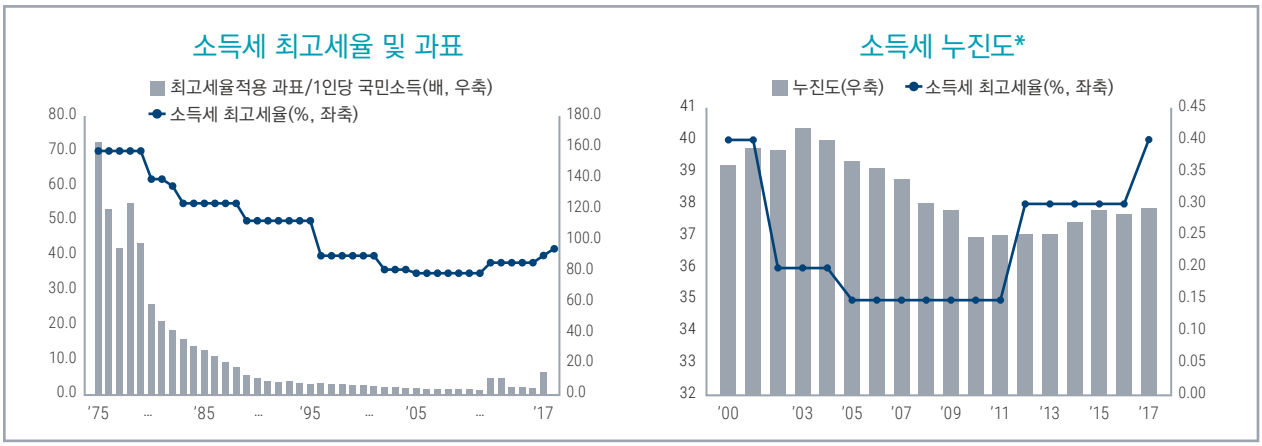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세부담이 세원별(노동·자본·소비) 또는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귀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세원별 세부담 귀착의 경우 노동소득 유효세율은 사회보장기여금 상승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자본소득 유효세율은 법인세 유효세율 인상 등으로 2014년 이후 상승추세로 반전하였으며, 소비 유효세율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은 소득 상위구간에 대한 세부담 귀착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소득 상위구간(상위 20%)의 유효세율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나, 소득 하위구간(하위 40%)은 소폭 하락하였다. ”

I. 조세부문 소득재분배 기능의 시기별 흐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과거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 금융위기 이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조세정책에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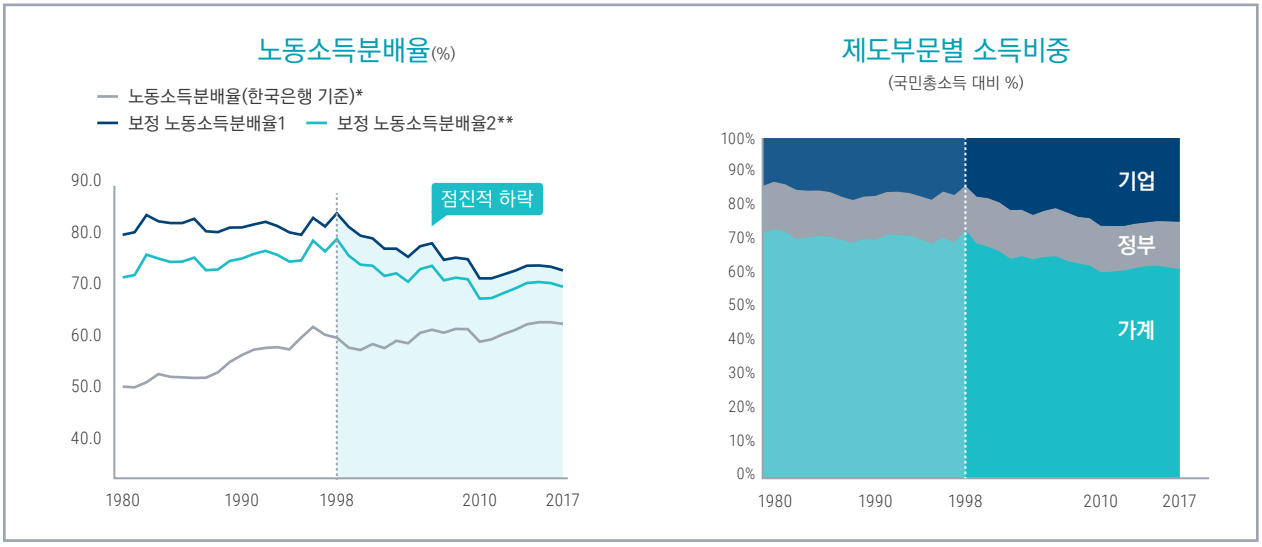
*누진도: (Tw167-Tw67)/Tw67, Twa는 평균임금 a%의 조세격차

NABO브리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I. 세원별 세부담 귀착효과

1. 세원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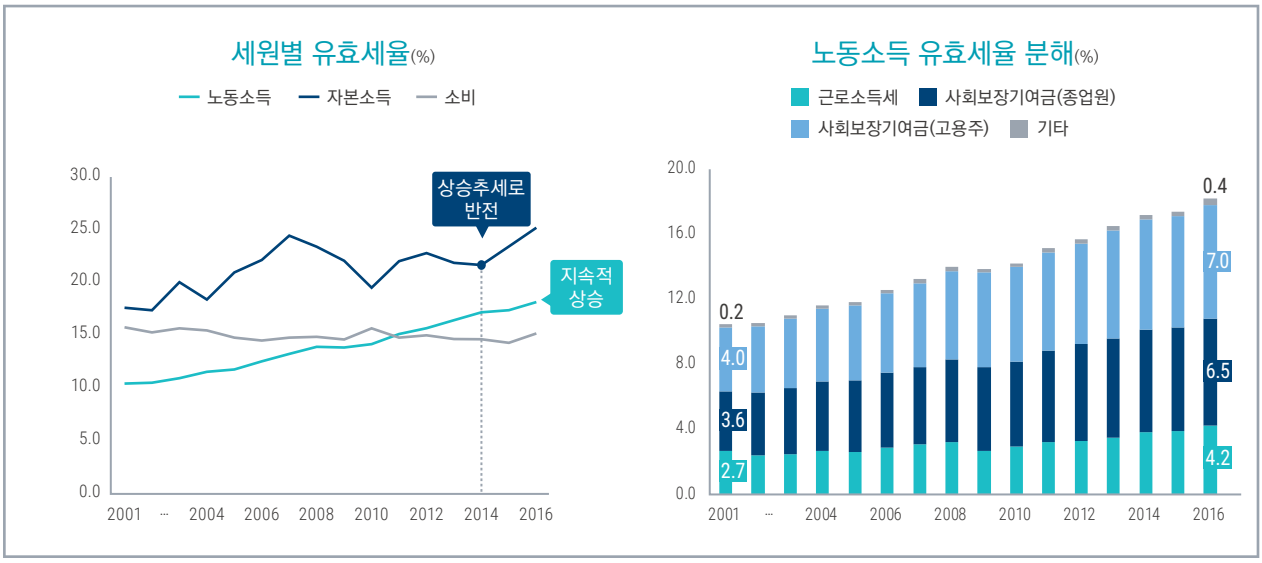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소득 둔화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소득에 비해 점진적으로 하락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보수)이 차지하는 비중,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전부 자본소득으로 처리
**보정 노동소득분배율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모두 노동소득으로 처리, 보정 노동소득분배율2는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중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처리

2. 세원별 세부담 분포

노동소득 유효세율(ITR, Implicit tax rate)*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자본소득 유효세율은 2014년 이후 상승추세로 반전, 소비 유효세율은 상대적으로 평탄
- 노동소득 유효세율의 상승은 주로 사회보장기여금 상승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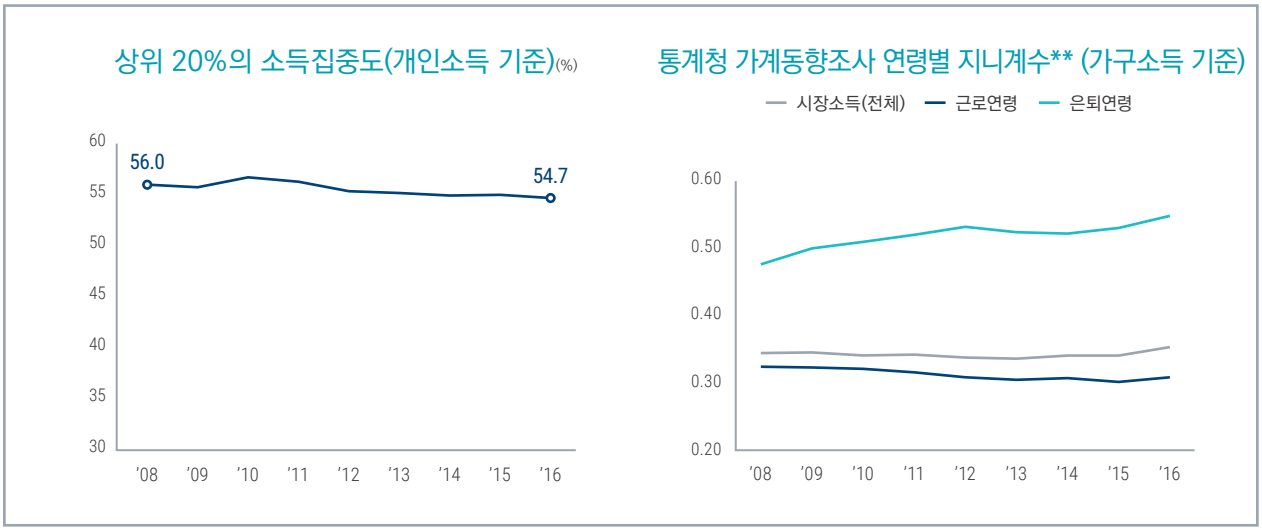


*유효세율(ITR, Implicit tax rate):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활용해 추정한 잠재적인 세원 대비 세부담 비율

Ⅲ.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

1.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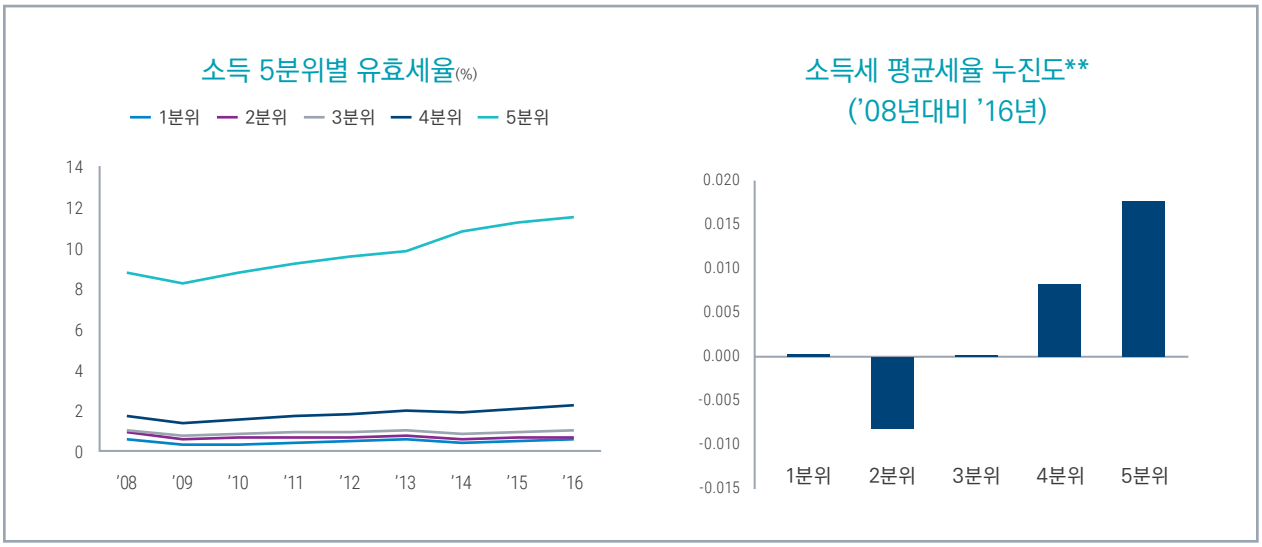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에 기초한 소득분배지수는 2008년 이후 소폭 개선
상위 20%의 소득점유비중이 2008년 56.0%에서 2016년 54.7%로 소폭 하락
-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인구고령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함의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합한 후 중복 신고소득을 제거한 통합소득 기준
**통계청 지니계수: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0~1)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음,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2.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

소득 상위구간(상위 20%, 5분위)의 유효세율*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
소득 하위구간(하위 40%, 1~2분위)의 유효세율은 소폭 하락, 소득 상위구간(4~5분위)을 중심으로 평균세율 누진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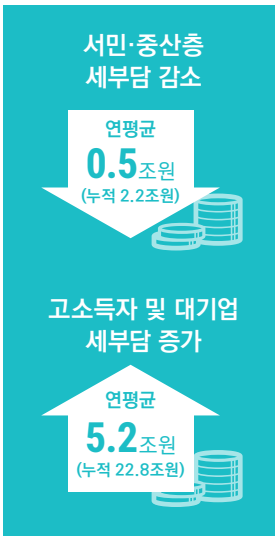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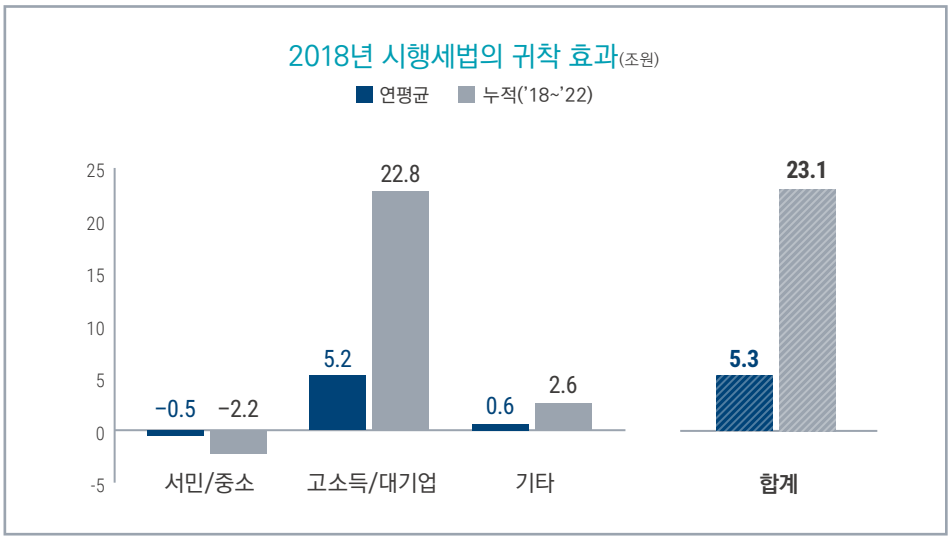
* 유효세율: 국세청의 소득100분위 자료기준, 통합소득대비 결정세액 비율, 소득세 기준
**평균세율 누진도: 실효세율 증감/소득 증감

Ⅳ. 2018년 시행세법의 세부담 귀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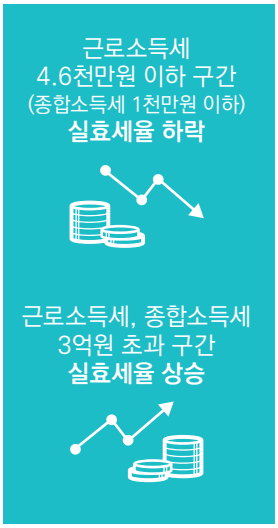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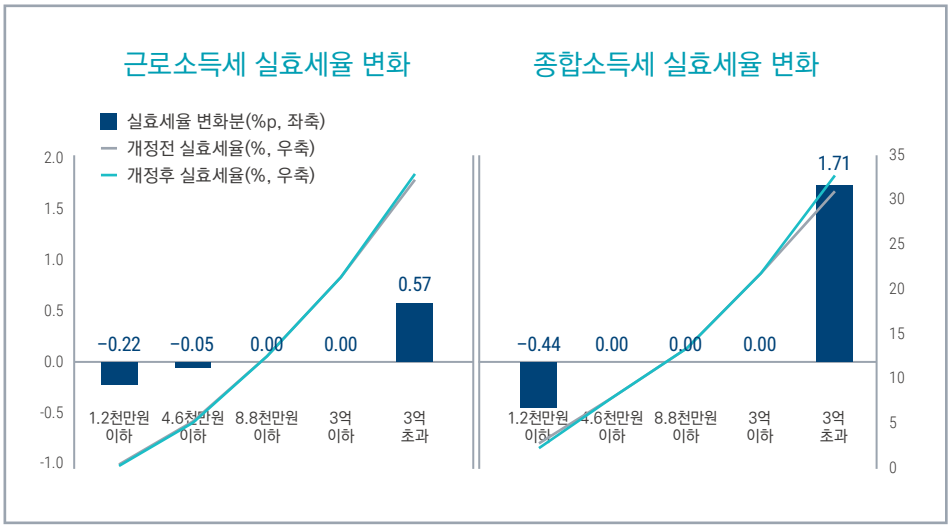
1. 2018년 시행세법*의 세부담 귀착효과 종합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연평균 0.5조원(누적 2.2조원) 감소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은 연평균 5.2조원(누적 22.8조원) 증가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누진구조가 강화될 전망





*2018년 시행세법: 2017년 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의 세부담 귀착효과임

2. 소득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과표 4.6천만원 이하(종합소득세 1천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이 0.1~0.4%p 하락,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이 0.6~1.7%p 상승하며 누진도 강화